

고대 한·중·일 원지의 비교연구

- 최근 발굴된 원지를 중심으로 -

박경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of Ancient Palace Ponds of Korea, China and Japan - Focus on the Recent Excavated Palace Pond -

Park, Kyung-Ja

General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lace of South Weol Dynastys authorities exhumed in the region of KangChoWu, China lies adjacent to a stone ditch through which water streams crookedly, and a dark trough of stone pond in the north side. There is a sharply curved stone ditch and a crescent-shaped water entrance made by stones. The place was separated by using stone columns and stone walls. There is a beam of ditch, a crooked entrance, a flat bridge of slate, a stepping-stone, a sluice gate, and a crooked corridor.

There are big and small artificial islands, and reinforcing stone drainage way in the palace pond recently exhumed at the building site for the pavilion of Hwang-Yong Temple in Kuhwang-Dong, Gyeongju city, Korea.

There are four facilities assumed to be entrance and exits at four corners and an open space on which gravel was spread extensively.

A narrow road and a middle road with indefinite curves at the south of Asukakyoseki exhumed by the first, second and third and two stone buckets which one is to fill with water and the other is to drain water off like fountain are there, and besides wave protecting dam and north pond and the part that water pass were excavated.

Palace ponds that were extensively distributed at old residential cities are a general phenomenon of countries in eastern Asia. Anap pond of Silla and Gunnam pond of Baekje were in Korea. We believe that Asukakyoseki is on the extension. Although more investigations in the background of thought and the genealogical relation about the palace pond are required, it seems that an idea was surely received from China.

Key Words : South Weol Dynastys, Pavilion of Hwang-Yong Temple, Asukakyoseki Palace Pond, Eastern Asia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술을 미를 추구하는 모든 조형예술활동이라 할 때 원지(苑池)와 같이 자연을 인공으로 조성하는 조경 미술은 미술 영역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술이나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국가나 민족 또는 지역과의 교섭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안휘준, 1996). 세계 어느 지역을 보아도 한 지방의 미술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차단된 채 단독으로 발생 발전한 것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극동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경양식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극동미술 즉 동북아 미술은 동일한 미술 권으로서, 원지에 있어서도 동북아 원지 양식이 형성된다.

동일 미술권 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교섭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미술이나 문화 혹은 역사에서 얘기하는 '교섭'이라는 말은 본래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에 이루어지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전한 의미에서의 영향관계는 영향을 받은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모방하는 수준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문화를 자기화 하거나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수준이나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느냐의 여부에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안휘준, 1996).

동북아의 세 국가 즉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는 문화 발전의 초기 시기이었으므로 자기 문화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문화교섭에 있어서 그 이후 시기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조경분야 중에서 특히 궁궐 중심의 못인 원지는 못이 고대로부터 조경공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어왔다는 관점과 사서(史書)에 남아있는 기록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 있고 최근 발굴된 원지 유적과 이미 발굴된 원지가 상당수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원지의 비교연구가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또한 비교연구가 가능하여, 교섭에 의한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원지의 공통점 즉 보편성과 삼국 특유의 특수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원지 양식에서 보이는 삼국의 문화교섭의 한 단면을 고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대 원지의 연구를 통하여 현대에서도 수공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조경 공간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대상

시간적 범위는 한국의 구황동(九黃洞) 분황사(芬皇寺) 동편 원지(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내 발굴 원지)는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며 중국의 남월국궁서어원(南越國宮署御苑)의 원지는 남월국 시기에 해당하고 일본의 비조경적원지(飛鳥京跡苑池)는 비조(飛鳥)시대에 해당한다.

분황사 동편 원지는 2001년 말 현장 설명회가 있었으며 남월국궁서어원의 원지는 1995년 하반기와 1998 초에 발굴을 마쳤고 비조경적원지 1차 현장설명회는 1999년도에 있었고 2, 3차 발굴 결과 발표는 2001년 말에 있었다.

본 연구는 현지 조사와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특히 동양의 경우 수공간(水空間)이 조경공간의 중심을 형성하여 왔다는 관점에서 최근 유구(遺構)가 발굴된 고대 동북아 삼국인 한·중·일의 궁궐 중심의 못인 원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II. 한·중·일 고대 원지 조영

1. 배경과 입지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인 분황사 동편 원지는 경북 경주시 구황동 292번지를 포함한 일대의 32필지에 해당한다. 동 유적은 황룡사지, 분황사 등과 함께 동악 명활산(明活山), 서악 선도산(仙桃山), 남악 남산, 북악 소금강산의 경주 사악(四嶽)이 교차하는 중심부에 속해 있으며, 보문호(普門湖)에서 서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북천이 서북쪽으로 곡류하는 지점의 남안에 해당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남월국 곡류석거의 항공사진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1기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원지, 축대, 건물지, 담장, 우물 등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원지는 안압지(雁鴨池), 용강동원지(龍江洞園池)에 이어 경주에서 3번째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대형 원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구로 판단된다(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2001).

중국의 남월국궁서어원유적은 광주(廣州) 노성구(老城區) 중심 성황묘(城隍廟) 앞 충우대가(忠佑大街) 서측의 건축 공사장에서 1995년 하반기와 1997년 하반기

에 발굴된 대형 석구수지(石溝水池, 石水池)와 또 보존이 기본 상 양호한 석구 곡거(曲渠)는 전국 십대 고고발현의 하나로 알려졌으며 남월국왕궁어원의 원립 수경임이 밝혀졌다(廣州市 文物局, 1999)(그림 2 참조).

나라현립강원고고학연구소의 발굴에 의한 비조경적 원지 유구는 명일향촌대자강(明日香村大字岡) 집락의 북서의 수전(水田)중에 있고 비조천 우안(右岸)의 저위단구면(低位段丘面)에 입지하고 있다. 비조경적 상층유구(제명(齊明)의 후비조강본궁(後飛鳥岡本宮)과 천무(天武), 지통(持統)의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의 내곽의 북서의 귀통이에 있으며 이것은 궁에 부속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의 조사결과는 비조시대의 원지 유구의 일부가 검출된 것으로 전체의 규모와 형태는 조사구역 밖으로 확인 할 수 없다(卜部行弘, 1999). 2000년과 2001년의 2, 3차 조사에 의해서 원지가 예상 이상으로 광대하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중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지의 전체 모습을 아직 알 수 없었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2001).

2. 형상

분황사 동편 원지는 전체적인 모습은 동북우(隅)가 말각(抹角)된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부에는 장축 중심 상에 북쪽에 대도, 남쪽에 소도의 2개소의 인공 섬을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소도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은 북발형(覆鉢形)에 가깝고 소도의 전체 둘레는 47m, 면적은 190㎡(57평)이며 대도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장축 동남-북서 방향의 부정타원형이며 대도의 전체 둘레 66m, 면적 371㎡이다. 호안 석축의 선형은 서안과 남안은 직선, 북안과 동안은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모두 허튼 층 쌓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호안 석축의 전체 길이는 180m에 달하며, 호안 석축으로 둘러싸인 연못의 전체 면적은 1,075㎡(325평)로서 안압지 면적의 약 1/15 규모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남월국궁서어원 석수지의 마치 머리모양의 돌 연못에 대한 이미 서남쪽 한 모퉁이의 발굴을 완전히 마쳤다. 서남 양쪽 연못 벽은 각각 길이 20m 정도를 드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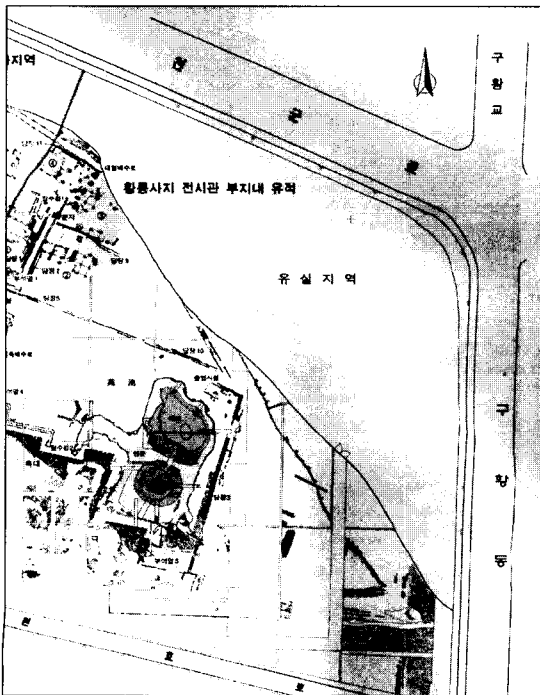


그림 2. 경주 분황사지 원지

이 경사형이 되고, 서쪽 벽의 북쪽과 남쪽 벽의 동쪽의 바깥쪽으로 뺀 부분은 각각 5층, 3층 건물 밑에 있다. 연못바닥은 평평하고 바르며, 모두 하천 조약돌인 하난석(河卵石)과 깨진 평평한 돌을 썼다. 지질 시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머리모양의 돌 연못은 그 원래 지세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원래의 규모는 알 수 없다(廣州市 文物局, 1999).

석구곡거(石構曲渠)는 남월국 시기 문화층 중에서 길이 150m의 홍사암석(紅砂岩石)을 써서 쌓은 굽은 도랑을 이루었는데, 그 방향이 북쪽으로 말미암아서 남쪽으로 급하게 전환하여 동쪽을 향해 만월형(彎月形)의 돌 연못에 이어져 있고, 다시 서쪽으로 완만하게 꼬불꼬불하게 나아가 전체 유지(遺址)를 가로 질렀다. 곡거의 북쪽은 곧 석지 아래의 암조(暗槽)와 서로 연결한 부분으로 5대 남한국(南漢國)시기의 연못의 가석산(假石山) 제방에 의해 파괴되었다. 급하게 굽어치는 곳 또한 파괴되어서 동쪽, 서쪽 양끝은 도랑의 중간에 미쳐서 모두 특수한 구조로 되어있다(廣州市 文物局, 1999).

비조경적 원지는 1차 조사에 의하면 호안 돌담은 원지 서변에 길이 35cm가 검출되었고 조사구내는 직선이며 남단에는 완만하게 굴곡져서 들어가 있고 직선부분은 북에 대하여 서쪽으로 21도 기울어져 있다(그림 3 참조). 또 발굴 구의 북측에 확장하는 부분에 남측으로 설상(舌狀)으로 길게 돌출한 호안 돌담이 검출되었고 그 성격은 서변의 호안에 연결하는 북변의 호안에서 길게 돌출한 뺀어 나온 상태의 시설 혹은 독립된 중도의 돌담으로 길게 돌출된 부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99). 2, 3차에 걸친 발굴 결과 원지의 범위가 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판명되었다(그림 4 참조). 아직 북쪽 경계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전체 형상을 알기에는 시기상조였다. 당초에는 1차 조사에서 검출된 장출(張出)된 부분을 섬의 일부로 생각해서 조사한 결과 중도는 남북으로 세장(細長)하게 있고 서안의 높은 부분이 축조당시부터의 중도일 가능성이 높다. 발굴결과 원지의 범위는 남북 길이 100m 이상 200m에 가까운 규모이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2001).



그림 3. 비조경적 원지의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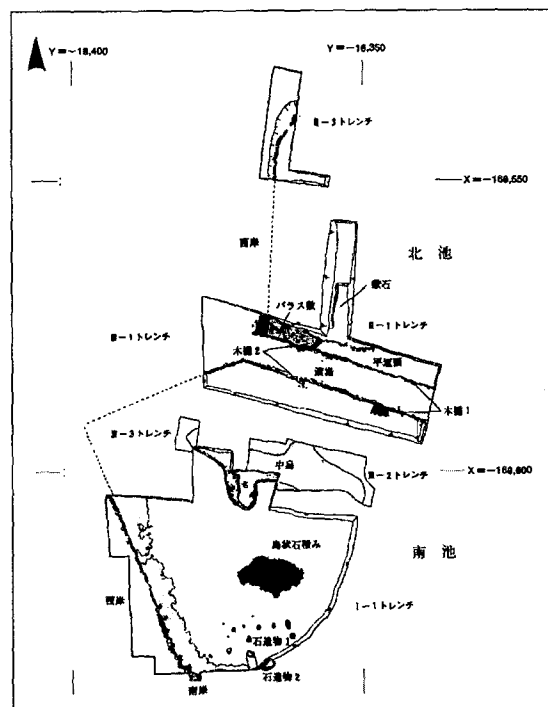


그림 4. 남지와 북지

3. 호안과 바다

분황사 동편 원지는 북안은 연못 호안 석축 중에서 가장 굴곡이 심한 부분이다. 파상(波狀)의 호안 석축이 동남-서북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며, 동안과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비교적 정교하지 못한 축조상태로 인한 붕괴 위험성 때문에 상부 2단 정도만 확인하였다. 북안은 20-30cm 크기의 천석(川石)으로 축조한 4-5단의 석축이 약 80cm의 높이로 잔존하고 있다. 동안 석축은 북안과 함께 곡선형을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완만하다. 동안의 남북 중간쯤(대도 동남우(隅))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부터 북쪽으로는 호안 석축의 사용 석재도 남쪽과 판이하게 다르며 그 북쪽은 북안과 마찬가지로 20-30cm의 천석을 사용하였고 그 남쪽은 30-70cm의 활석(割石)과 천석을 혼용하였다. 서안의 북반부는 북안 석축과 마찬가지로 25cm 안팎의 천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활석과 천석을 혼용하였고 50cm 안팎의 활석을 사용해 조경석으로 삼았다. 이 호안 석축과 2.3-4.0cm 서쪽에 위치한 부지 상 하단 경계선을 따라 축조된 축대 사이에는 50cm 이상의 대형 활석들을 운치 있게 세우거나 산치(散置)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남월국궁서어원 돌 연못의 남쪽 벽은 황백색 사암석 판을 써서 평평하게 깔았고, 남쪽 벽은 북쪽을 향해 경사지고, 서쪽 벽은 동쪽을 향해 경사져 경사가 각각 길이 약 11m, 경사각도 15도, 두 벽 경사가 서로 만나는 곳은 돌을 쌓아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연못 벽의 간 돌 판들은 두께가 5cm-12cm, 고르게 얼음이 깨진 것을 뽕뽕하게 깨맨 듯한 문양인 밀봉빙렬문(密縫冰裂紋)이 다투어 합한 듯 돌을 평평하게 깔 것이 정교하다. 돌 연못의 주변은 겨우 서북 면의 돌판 아래가 녹슨 쇠색인 철수색(鐵鏽色) 생토층이 되고 그 나머지는 홍황색 혹은 철수색 반점의 점토가 섞여있고 토질은 순정하며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연못 벽의 상단은 거의 후대에 다 파괴되었다. 겨우 남쪽 비탈의 동쪽 면에서 몇 조각의 평평하게 깔 작은 돌 판이 보인다. 아마도 연못 주변지대 포석의 잔존인가 보다(廣州市 文物局, 1999).

석구곡거는 돌 고랑 양편은 홍사암석을 써서 벽을

쌓았는데, 높이 0.7m, 윗넓이는 1.4m, 양쪽 도랑 벽 위는 다시 흙으로 덮은 낮은 난간으로 더해 쌓아서 조금 바깥쪽을 향해 드리웠다. 도랑 바닥은 돌 판을 깔아 밀봉빙렬문으로 깔고 도랑 밑의 돌 판을 간 위에 조밀하게 한 층으로 회 흑색의 조약돌인 하난석을 깔고 가운데 다시 황백색의 대형 난석(卵石)을 써서 지(之)자형으로 드문드문 점으로 배치하였다(廣州市 文物局, 1999).

비조경적원지의 서변 호안 돌담은 현상에서 높이 80cm, 1-4단이 남아있고 경사지게 쌓여져 있으며 북측에는 돌을 간 위에 작은 자갈을 두고 그 위에 수직으로 쌓고 있고 3단 쌓아서 높이 110cm가 남아있다. 부석(敷石)은 못 바닥에 청회색 사력토 상에 10-30cm의 큰 돌을 평탄하게 치밀하게 깔고 있으며 본래는 전면에 깔았던 것이고 조사구 북동부에 남아있는 것은 양호하며 부석 면의 높이는 거의 수평이다. 도상(島狀) 적석은 부석 위에 6x11m의 범위에서 간 돌 보다 약간 큰 돌을 높이 60cm로 쌓아올렸고 평면형은 부정 타원형이며 2개소에 작게 뻗어 나와 있으며 상면은 2x5m범위로 평탄하게 면을 끊지 않도록 깔았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99).

4. 입수와 출수

분황사 동편 원지는 남안과 만나는 남단에 석축의 평면형태가 바깥으로 돌출된 곳이 있어 입수구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안에서 7m 거리의 서쪽에 연못 출수 시설로 추정되는 집수정(集水井)과 석축배수구가 노출되었다. 집수정은 40-70cm 크기의 귀갑석(龜甲石)과 활석을 혼용하여 직경 110cm 크기의 원형으로 축조하였는데, 처음부터 개석(蓋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 소도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부위에 출수구가 서쪽으로 진행된다. 돌출된 출수구는 다른 부분의 석축과는 달리 30cm 내외의 활석과 천석을 혼용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50-100cm 크기의 대형 활석과 천석을 세워서 조경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남월국궁서어원 축수석지(蓄水石池) 남쪽 벽 아래에서 물을 인도하는 목질의 암조(暗槽)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나무를 깎아서 만든 오목형의 모난 암조로 위는 두꺼운 판을 써서 덮었으니, 덮개와 오목 암조는 각각 분별하여 뾰족한 추 형상을 파서 어금새를 끼워 맞추었다. 목조의 밖 넓이를 계산해보니 높이는 각각 39cm, 안 넓이는 23cm, 높이 18cm이다. 이미 정리한 한 부분은 남쪽으로 향해 뾰은 부분으로 명나라 때의 벽돌 우물에 의해 그 뒤가 절단되어, 1997년 곡류석거를 발굴할 때에 겨우 이 목조가 석지의 물을 남쪽으로 인도해 곡류석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만월형 석지 양 출구의 바닥은 구불구불하게 경사져 곡거(曲渠)로 더불어 서로 이어져 동쪽 벽과 서쪽 벽의 끈은 벽은 고르게 돌을 써서 쌓았으니, 평면은 원호형이니, 연못 가운데엔 또 두 줄로 끈게 세운 높이 1.9m의 큰 석판이 동쪽 벽에 바짝 달라붙어서 칸막이 벽 역할을 하고 있어 돌 연못을 세 칸으로 나누어 막아 칸막이 벽과 서쪽 벽 사이에 남은 빈 공간이 마치 보도와 같으며, 양쪽의 출구와 연결해 있다. 거피(渠陂)와 사구(斜口)의 북쪽의 대형 석수지의 물이 곡거에 흘러들어 갈 때에, 흐르는 물이 거피를 넘어가서 하난석을 씻어내려 곧 마치 소동파(蘇東坡)의 시에서 말한 “굵은 연못에 흐르는 물의 잔물결이 고기 비늘 같구나”라고 한 물결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출수 수문은 사각형으로 곡거 서쪽모서리 끝 부분에 설치하여 안과 밖을 둘로 나누었다. 내층은 한 개 요(凹)자형의 석질의 모난 틀을 하고 있으니, 내측과 바닥은 고르게 오목한 암조를 파서 물을 제어하는 수문을 설치하였다. 바깥층은 사암석판을 깨고 파서 만든 불순물을 거르는 망인 그물을 써서 도랑물에 떠내려 오는 잡동사니를 막아 걸러내고 또 자라가 이로 말미암아 유실되는 것을 막았다. 수문 밖은 목질 암조에 연결하여 배수하니, 이 부분 암조의 안 넓이는 북쪽 축수석지 아래의 물을 인도하는 암조에 비해 한배나 크니, 가히 당시 설계 상 이미 곡거의 흐르는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였음을 볼 수 있다. 출수구는 입수구 보다 더 커서 석거의 물 흐름이 시원하게 막힘이 없어서 밖으로 넘쳐흐를 수 없도록 하였다(廣州市 文物局, 1999).

비조경적 원지의 석조물은 대정(大正) 5년 발채한 갱(坑)의 선단에서 1.5m의 간격을 둔 지점에 석조물1

을, 발채한 갱의 등에 접한 조사구의 서벽 쪽에서 석조물2개가 검출되었다. 석조물1은 원위치에서 수립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화강암으로 상부에 횡 방향으로 구멍을 파고 현재 높이 150cm, 아랫부분 두께 72cm, 구멍 직경 9cm이며 석조물2는 평탄한 돌덩어리의 내측에 통모양으로 파서 물을 머물어 흐르게 하는 장치로 생각되며 길이 약 270cm, 폭 약 200cm, 두께 60cm이다. 석조물을 통해 남북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란히 단으로 된 언덕을 이용해서 남방의 위쪽에서 유수하여 연못 속으로 낙수를 의도한 것이 분명하다(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99).

5. 건물지와 기타

분황사 동편 원지의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곳은 네 귀퉁이에 각각 위치한다. 동북 우에서는 북장(北牆)과 동장이 끝나는 부분에 3m 너비의 공백이 있어 출입시설로 추정되며, 동장이 북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건물기단으로 추정되는 500x380cm 규모의 석렬(石列)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지 근은 유적 서북 편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남월궁국서어원 곡거의 곡류석거의 끝 부분은 굽은 회랑에 연결해 있는데, 회랑은 이미 무너지고 일부분의 산수(散水)만이 보존되어있으니, 큰 벽돌과 난석을 써서 비스듬히 깔았고, 곁에는 잔류된 2개의 나무기둥이 있다. 한 단락 회랑의 산수부분은 직접 곡거 출수구의 목질 암조의 위를 누르고 있다. 회랑과 그 주위를 정리할 때에, 발견한 판와, 동와(洞瓦), ‘만세’ 와당이 특히 많고, 또 인화(印花)된 벽돌 조각이 있고 서쪽의 한 단락은 진(晉) 이후 동한(東漢)의 지층에 상당하니 적지 않은 대형 석조구조물을 발견했고, 굴석(礎石), 팔각형 석주, 난간 석좌, 문미(門楣)석판 등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지금의 이동공원인 북쪽 면에 대형궁전유지가 묻혀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곡거의 서쪽 모서리 끝 부분에 석판 평교가 있으니, 이는 두 개의 큰 돌을 가로로 뉘어 양쪽 도랑벽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는 1.76m, 넓이는 2.36m이니, 다리 어귀의 디딤돌은 겨우 북쪽에 한 단락이 보존되어 있으니, 모두 9개의 돌 조각으로 되어 만월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양 디딤돌 사

이는 거리가 0.6m이며 중국에 현존하는 명 청 이래의 원림의 디딤돌 설치는 그 사이 거리가 대부분 0.6m로 하는 것이 준칙이다. 도랑 바닥의 적토를 정리할 때에, 활엽수에 속한 잔엽, 과일 씨 그리고 적은 량의 자라잔해를 발견하였다. 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당나라 사람 유우석(劉禹錫)의 “향기로운 수풀에 새 잎새는 묵은 잎새를 재촉하고 흐르는 물에 앞 물결은 뒷 물결에 사양하도다.”란 시구를 연상하게 하니, 당시에 궁원 중의 향기로운 수풀, 푸른 풀, 작은 다리 흐르는 물은 충만하게 시적인 정취와 그림 같은 경지의 남국 원림의 경색을 또 현재 우리들의 눈앞에 드러내는 듯하다(廣州市文物局, 1999).

III. 비교 분석 및 결론

한국의 분황사 동편 원지와 중국의 남월국궁서어원 원지와 일본의 비조경적 원지의 비교연구는 분황사 동편 원지 보고가 입수구가 미확인된 중간보고이며 남월국궁서어원 원지와 비조경적 원지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인 확장발굴이 기대되는 원지로서 현재 시점에서의 발굴보고 결과에 의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분황사 이외의 다른 원지들은 앞으로의 발굴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발굴 결과에 의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굴된 한·중·일 고대 원지를 공통성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

1. 원지의 중도 유무는 분황사 동편 원지에서는 대소 2개의 섬이 발굴되었고 비조경적 원지에서는 중도가 확인되었다.
2. 원지의 바다 처리 재료와 기법은 남월국궁서어원 원지의 석구곡거에서는 도랑 바닥은 돌 판을 깔고 그 위에 조밀하게 한 층으로 회 흑색의 하난석을 깔고 가운데에 다시 황백색의 대형 난석을 써서 지(之)자형으로 드문드문 점으로 배치하였다. 비조경적 원지에서는 부석은 연못 바닥에 청회색 사력토 상에 10-30cm의 큰 돌을 평탄하게 치밀하게 깔고 있으며 본래는 전면에 깔았던 것이고 부석 면의 높이는 거의 수평이다.

3. 건물 배치 상태는 분황사 동편 원지에서는 동쪽 담장이 북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건물기단으로 추정되는 500x380cm 규모의 석렬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지 군은 유적 서북 편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남월국궁서어원 원지에서는 곡류석거의 끝 부분은 굽은 회랑에 연결해 있는데, 회랑은 이미 무너져 다만 일부분의 산수만이 보존되어있고 회랑과 그 주위를 정리 할 때에 발견한 외당이 많고, 벽돌 조각이 있고 적지 않은 대형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이곳 북쪽 면에 대형궁전유지가 묻혀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특징적인 차이점으로는

1. 원지 형상에서 분황사 동편 원지는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형이고 남월국궁서어원 석수지는 머리모양과 석구곡거이며,

2. 호안 형태는 분황사 동편 원지의 북안은 굴곡이 심한 파상의 호안 석축이며 동안 석축은 북안과 함께 곡선형을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완만하고 남월국궁서어원 석수지의 남쪽 벽은 북쪽을 향해 경사지고, 서쪽 벽은 동쪽을 향해 경사져 두 벽 경사가 서로 만나는 곳은 돌을 쌓아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호안 석축 재료와 방법에도 차이가 많다.

3. 원지의 입, 출수구 설치와 기법은 분황사 동편 원지에서는 출수구로 추정되는 집수정과 석축 배수로, 출수구가 보이고 남월국궁서어원에서는 목조 압조로 석지의 물을 곡류석거로 들어가게 했으며 출수 수문은 사각형으로 곡거 서쪽모서리 끝 부분에 설치하여 수문 밖은 목질 압조에 연결하여 배수했고 비조경적 원지에서는 석조물은 평탄한 돌덩어리의 내측에 통 모양으로 파서 물을 머물러 흐르게 하는 장치로 생각되며 석조물을 통하여 남북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란히 단으로 된 언덕을 이용해서 남방의 위쪽에서 유수하여 연못 속으로 낙수한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한·중·일 삼국의 고대 원지를 최근 발굴된 사례들에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원지에 중도가 있고 이것은 삼신산의 하나로 유추할 수 있고, 원지 바닥에 돌을 깔았으며 주변에 대형 건물 군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통적으로 대형 건물 군 주변에 삼신산의 하나인 중도가 있는 돌을 깔 원지가 조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지 형상과 호안 형태와 석축 기법, 원지의 입, 출수구 설치와 기법에서 뚜렷한 차이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대 원지의 연구를 통하여 위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 동북아 3국의 공통적인 고대 원지 양식과 한·중·일 삼국 원지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한 현대에서도 수경공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조경공간 조성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인용문헌

1. 廣州市 文物局(1999) 南越國宮署御苑遺迹 廣州秦漢考古三大發現.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1)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3.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1999) 현장설명회 자료.
4.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2001) 日中の考古學(日中の7, 8世紀の考古學), pp. 1-7.
5. 卜部行弘(1999) 飛鳥京跡苑池遺構の調査, 發掘さらた飛鳥の苑池.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pp. 1-2.
6. 안휘준(1996) 미술 교섭사 연구의 체문제. 고구려 미술의 대외 교섭. 서울: 예경.

원고접수: 2002년 07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10월 1일

3인익명 심사필